

이데일리

[김인경의 20!금융]시로 '코 지문' 인식..알리페이의 첨단 펫보험

기사입력 2020-08-02 10:27 최종수정 2020-08-02 17:47

**알리페이, 반려견·반려묘 비문 인식 바탕으로 펫보험 진출
개체 식별이 문제였던 펫보험에 '비문 인식 정확성 99%' 기술 도입
반려동물만 1억8800만마리인 中..펫보험 시장 활기 띌 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에서 펫보험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결제업자인 알리페이(즈푸바오)가 반려동물의 코 지문인 '비문'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비문이란 강아지나 고양이의 코 주름 무늬를 말한다. 사람의 지문이 각자 다른 것처럼 동물의 비문도 개체마다 서로 다르다. 개개인을 구분하는 사람의 홍채나 지문처럼 비문을 이용하면 강아지나 고양이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비문을 통해 강아지나 고양이의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리페이 측의 설명이다.



알리페이가 출시한 펫보험 '츙우렌'은 사진을 통한 비문인식으로 반려동물의 신원을 증명한다.[SCMP제공]

그동안에도 비문은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활용됐지만, 코 위에 잉크를 발라 흰색 종이 위에 찍어누르는 식이라 공유가 힘들었고 오류도 많았다. 하지만 알리페이는 사진을 통해 비문을 구분하는 기술을 내놓았다.

보험 가입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코 사진을 찍어 올리면 비문정보가 입력되고, 보상 청구 때 비문을 통해 처음 등록한 반려동물이 맞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그동안 펫 보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개체 식별 문제였다. 강아지 목걸이에 인식표를 거는 '외장형'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 피부에 마이크로칩을 심는 '내장형' 방식도 있지만, 동물 몸 속에 칩을 넣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비문 인식기술이 획기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알리페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견과 반려묘의 비문 인식 정확도는 99%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알리페이의 펫보험인 '충우렌(寵物險)'은 생후 3개월 이후부터 10살까지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연 199위안(34만원), 399위안(68만원), 799위안(136만원) 등 총 3가지다. 알리페이는 중국 전역 6000여개의 동물병원과 손을 잡고 회당 최대 2000위안(3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국 보험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려동물 수는 1억8850만 마리를 넘어섰고 반려동물 시장은 2020억 위안(약 35조원) 규모에 이른다. 반려동물 미용실은 물론 호텔, 장례식장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강아지가 아플 경우 의사들도 많지 않아 가격도 높은데다 펫 보험 가입률 역시 미미하다.

반려동물의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펫 보험은 중국에서 2013년부터 판매됐지만, 7년이 지나도록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펫보험 가입률이 40%에 육박하는 스웨덴이나 19.8%에 달하는 미국은 물론 6% 수준인 일본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 뽀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8&aid=0004704185>